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자 원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2014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은 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개발을 위한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2009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이 자 원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김 은 혜

# 인준서

김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제시하면서 창의·인성 교육의 시대를 열고 있다.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과 수업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안목으로의 교수 방법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규 수업과정과 창의적인 수업 활동을 함께하여 교과 교육으로서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거나 반드시 길러야 할 창의성의 개념과 의미를 밝혀 이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실천상의 문제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는 사회과 과목들이 학문으로서 그 초석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미래 교육의 진로 방향에 맞춰 발전하기 위해 진화해야 하며 그 방법은 가까운 곳에서 찾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사회(지리)교과와 더불어 교육 목표와 성취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사회과에서는 조사학습, 발표학습, 현장체험학습, 문화재학습, 사료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비록 선행연구가 ‘사회과답지 못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창의적이지 못한 사회과 교육’이 실천될 위험이 있었지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사회과에 적합한 새로운 창의성 개념의 모색과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해외 사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사례 연구에서는 일본·중국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창

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졌을 뿐 대부분의 국가가 야외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반영하여 현 시점에서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의 현황과 여건, 바람직한 정책 방향, 미래상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과에 포함된 과목(지리 등)들이 그 초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방법..... 4

####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인성 교육(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 및 성격..... 6
2. 2009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지리) 교과에 관한 선행 연구..... 11
  - 1) 2009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지리) 교과의 구성..... 11
  - 2) 사회(지리) 교과에서의 창의적 체험에 관한 선행 연구..... 13

#### III.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해외 사례 비교 연구

1.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
2. 해외 사례 분석..... 23
  - 1)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체험활동(영국, 중국)..... 24
  - 2)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미국, 독일)..... 26
  - 3) 교육과정 시간표에 포함된 체험활동(미국, 일본)..... 29
  - 4) 국가의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체험활동(프랑스, 핀란드)..... 34
  - 5) 체험활동에 관한 해외 사례 시사점 분석..... 39

#### IV. 결론..... 50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 표 1 >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고등학교별 중점사항.....	7
< 표 2 > 사회과의 창의·인성 요소.....	14
< 표 3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15
< 표 4 > 초등학교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16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sup>1)</sup>.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학기당 이수과목을 축소하고 통합 운영이 가능한 교과 즉,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특정학기나 학년에 집중이수하게 하여 수업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학회·과학 탐구활동, 예체능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으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본 연구에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볼 수 있다. 학교에서 인재 양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실제적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셋째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 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한 후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영역(국어, 영어, 수학)교과활동은 더욱 강화하고, 탐구영역(사회, 과학)의 교육은 기존의 지식전달 위주의 획일적 수업

<sup>1)</sup> 이자원, 김은혜, 2010,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 44권 제3호, 428p

을 지양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을 적용하는 등 수행능력을 강조하면서 예체능 영역과 선택영역의 내실화를 위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목을 통합하고 수준별로 편성하여 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방식을 벗어나 각 학교별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며 고등학교에서는 공통필수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이수단위 수만 지정하여 학생들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 각자 필요로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확인해 볼 때 교과군과 학년군 도입을 통한 집중이수제로 진로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과목들을 미리 배워 배움의 깊이가 사라졌으며 도덕, 음악, 미술, 실과 등은 통합 운영되어 시간표에서 사라지거나 합쳐짐으로써 그 시수를 줄여 토론, 실험 중심으로 수업 혁신을 유도하기 더욱 힘들게 되었다<sup>2)</sup>. 다행히 창의적 체험활동이 의무적으로 도입되어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을 강화시키자는 내용으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은 시도되었으나 기존의 교과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지는 못했다. 또한 탐구영역(사회, 과학)의 교육은 이러한 개정내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식전달 위주의 획일적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학교에서는 높은 학업 성취도와 진학률을 갖기 위해 똑같은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결국 주요과목은 주요과목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그 외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야 하는 등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해야 하는’ 부담만 더 주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인 안목과 지구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세계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따라잡고 쫓아가는’ 주어진

---

<sup>2)</sup> 2009 개정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연구 논문들의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함.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갖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국가 단위의 삶이 강조되고 국가 간 경쟁의 사회였다면 다가오는 미래 사회는 개별 국가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고 국가 간의 협력과 승자와 패자가 아닌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국제화와 세계화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고, 교육에서도 세계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핵심 역량으로서 새롭고 적절한 산물을 산출하는 능력으로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단순히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지식을 활용하고,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육과 학기술부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교육과학기술 선진화로 세계일류 국가 도약’을 2010년 정책방향으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설정하였다<sup>3)</sup>. 또한 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실태와 연구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교과 영역의 특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과에서 추구하려는 창의성의 개념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창의·인성 교육<sup>4)</sup>(창의적 체험활동)과 사회과 교육에 대한 비교를 통해 두 교과에 통합성<sup>5)</sup>을 밝히고, 해외에서의 사례를 찾아 연구한 바를 적용할 수 있는 수업을 탐색하고, 수업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사회(지리) 수업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사례가 되고자 한다.

3) 이명준 외,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11-7-1, 73~358p

4) 우리나라 기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명칭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일하여 진행하고자 함.

5) 통합성이라 하더라도 활동에 교과를 통합하기 보다는 교과에 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함.

## 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첫 번째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소개한 후 4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기존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이 정규 교과 내 사회(지리)와 융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념 및 활동 사례에 초점을 두고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회교과 내 정규 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회교과 과정에서의 교육 목표와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아 수업에 함께 적용했을 때의 구체적 효과와 그 교육적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교과에서 지리영역은 교실 내 수업보다는 현장 답사 및 외부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매우 관련이 있는 교과이므로 분석 및 논의를 통하여 사회교과 내 정규 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특징에 맞게 분류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분류된 특징과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징을 비교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인성 교육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짚어본다. 해외 사례 국가의 선정은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에서 지리학 연구 및 지리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 핀란드와 중국을 선정하여 총 7개국을 조사하였다. 핀란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지만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 교육 분야 정부 지원이 많고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지리학 외에 교육학에서 교육 선진국으로 많이 연구되는 나라이며, 중국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인접한 나라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어 추가로 선정하였다. 해외 사례 조사 방법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웹 페이지와 문헌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인성교육 성공 요인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자체적으로 분류하였다.

세 번째로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회과 수업에 대한 교수 방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규 수업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교과교육으로서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거나 반드시 길러야 하는 창의성의 개념과 의미를 밝혀 이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실천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류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사회(지리)교과와 더불어 교육 목표와 성취에 맞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지리)교과와의 연관성을 찾고, 구체적 교과 적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연구하여 비교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활동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활용성이 높으며, 교육 활동에 유의미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철학적 배경을 분석하여 사회과 수업이 학생들에게 주요한 과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의·인성 교육(창의적 체험활동)의 개념 및 성격

본 연구에서 제시 될 창의적 체험 활동의 개념<sup>6)</sup>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에 담겨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이다. 궁극적으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2007 개정 재량활동 및 특별 활동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주요 차이점은 초등학교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의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 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과 외 교육활동의 수업시수를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교과군에서는 기존의 교과들을 교육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대상 또는 방법성의 인접성, 실제 생활양식에서의 상호연관성 등을 고려해 비슷한 주제의 교과목끼리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기초생활습관의 형성,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에 중점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고등학교별 중점사항은 <표 1>과 같다.

---

6)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2009. 12. 23)한 후 바로 이어 2010년 1월 5일에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안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그 중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을 통한 교육적 성취의 내용과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내용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표 1. 창의적 체험활동 초·중·고등학교별 중점사항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중점사항
초등학교	기초생활습관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개성과 소질의 발현
중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확립, 진로탐구, 자아 발견과 확립
고등학교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진로선택과 자아실현, 다양한 욕구의 건전한 방향유도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권영민,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의 내용을 발췌 인용함.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창의적 체험활동은 ‘창의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창의성은 새로움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요소를 만족시켜야 창의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창의적인 사람이나 집단이 창의적 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성할 때 사회적 맥락에서 새로움과 유용성 기준을 충족시킬 때, 창의적인 산출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sup>7)</sup>.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말 그대로 ‘체험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체험을 강조한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경험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실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학습으로의 적용을 통해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적(교육기본법 제 2조;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과 교육방법(교육기본법 제 9조; 학교교육은 학생의

<sup>7)</sup> 이광복,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해, 충북교육연구, 제13호, 98~115p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을 모두 만족하는 방법으로 운영 한다<sup>8)</sup>.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으로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sup>9)</sup>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과 활동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 활동이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인지적인 접근을 주로 한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측면에서 교과 활동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 학습 내용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제 문제,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교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흥미를 느끼게 하여 교과에 대한 바람직한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 활동은 집단을 단위로 하는 활동이며,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구성원 간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별 수업시수는 이전 교육과정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은 제1학년에서 제10학년(초1~고1)까지 10학년제였다. 이 기간을 국민공통교육기간으로 하여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제2~3학년 단계인 제11~12학년에서는 선택중

<sup>8)</sup> 교육과학기술부, 2010

<sup>9)</sup>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9-41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권영민, 교육과학기술부), 156p

심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국민공통교육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9년으로 감축하여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고, 선택중심교육과정 이수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여 선택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즉, 공통교육과정기간은 초·중학교 수학기간과 교육과정 및 이수기간을 맞추었고, 선택교육과정은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및 이수기간을 맞추었다. 초·중학교는 공통교육과정을 교과(10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4개 영역)등 두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을 4개 교과 영역과 8개 교과(군)로 편성하였다. 선택교육과정 4개 교과영역은 기초(국어, 수학, 영어), 탐구[(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예술(음악·미술), 생활·교양(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등이다. 각 학년군의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총 수업시수는 제1~2학년군(초등학교 제1~2학년) 1,680시간, 제3~4학년군(초등학교 제3~4학년) 1,972시간, 제5~6학년군(초등학교 제5~6학년) 2,176시간이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시수이므로 기초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체험활동으로의 시간적 배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교육과정(초·중)에 기준하며 그 시간적 배분이 적은 편이나 선택교육과정(고)에서는 시간적 배분이 많은 편이며, 교장 권한의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탐구과목 중에서도 사회는 많은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되었다. 선택교육과정(고)에서는 입시 및 여러 가지의 여건상의 이유로 체제 및 수업을 바꾸기가 힘들지만 공통교육과정에서 배정된 시간이라도 유의미하게 수업하여 사회 교과가 학습에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그동안의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이 지나치게 교실 안, 학교 안에 머무는 것을 우려하여 교실 밖과 학교 밖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내어 활기찬 학습과 생활을 전개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사고와 활동을 통해 창의적 능력을

기워나감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대립과 경쟁보다는 협동과 배려를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실현해 주고자 하는 것을 기저로 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기존의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넘어서 새롭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발상, 발견, 발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렀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외 영역인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라는 교과 외 영역의 통합의 의미를 넘어 다음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현행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함으로써 통합된 활동 즉,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중심으로 배려와 나눔의 실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배려와 나눔의 실천으로 창의 인재 양성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모두 학교 현장에서 체험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형식적, 파행적 운영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등의 불만족한 면을 기저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이 제기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명칭은 그동안 학교 교육에서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이 본래의 의도나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운영이나 변칙운영에 의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논

의의 중점이 되었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자율적 활동을 강화하자는 점과 교과 외 활동에 대한 국제적 교육 실태의 반영이 고려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진로교육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 활동 영역을 도입하여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와 함께 일찍부터 자신의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적절한 활동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되어야 하는 정당성을 인식시키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2. 2009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지리) 교과에 관한 선행 연구

### 1) 2009 교육과정에서의 사회(지리) 교과의 구성

사회과 교육과정은 총론과 사회과의 개정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개정<sup>10)</sup>되었다.

첫째, 현행의 사회과 통합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역사를 사회과 내 한 과목으로 독립하였고, 한국사와 관련된 세계사의 내용을 일부 포함시켰다.

둘째,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지나치게 상세화되면 단위 학교의 권한을 침해하여 획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와 성취 기준 중심으로 제시하여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추구하였다. 단원별로 대강화된 성취 기준만을 제시하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학습 활동에 사용할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장 교사가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강화하였다.

셋째, 개정 교육과정의 각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성격

10)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23~60p

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사회 현상을 인식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목표에서는 지리, 역사 및 사회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익혀, 우리 사회의 특징과 세계의 여러 모습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내용에서는 학년별 교육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여 학습 분량을 적정화하고, 지리, 역사, 일반사회 영역의 통합적인 사고를 지향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사회 현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넓히고 인간 생활과 사회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은 학습자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학습자 여건 및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사회 현상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을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의 사고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적절한 탐구 상황을 설정하고 다양한 발문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며,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도, 도표, 영화, 슬라이드, 통계, 연표, 연감, 신문, 방송, 사진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활용을 권장하였다.

평가에서는 내용의 강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자율화에 맞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평가는 개개인의 학습 과정과 성취 수준을 이해하고 발달을 돕는 차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영역별로 볼 때 지식 영역에 치우쳐서는 안되며, 기능과 가치·태도 영역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sup>11)</sup>.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별 전체적인 공통점은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입시 위주의 지식 중심 교육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적 경영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창의·인성 교육이 우리나라

11) 교육과학기술부, 2010년 사회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에 준거함.

의 교육과정에도 도입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교육의 변화라 할 수 있다.

## 2) 사회(지리)교과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

현재 사회과에서 창의성 교육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사회과 교육계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다<sup>12)</sup>. 교과교육 차원에서의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과에서는 창의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회과에서는 창의성을 하나의 인지기술 내지 사고기능으로만 받아들여 모든 학습 모형이나 방법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창의성은 기술이나 방법이지, 하나의 내용으로 성립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과에서 추구해야 할 또는 길러야 할 창의성의 개념과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그동안 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학교 사회과의 창의·인성 교육은 교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창의·인성요소를 파악하여, 교과특성에 맞는 창의·인성 교육 방법을 구성한다.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의 수단이 되는 교과 관련 지식과 기술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며 교과 전문교수나 교사에 의해서 진행되어온 교과 관련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창의·인성 발현의 심리적 특성을 계발하는 교육을 하자는 의도이다. 창의·인성 요소 중 사회과와 관련한 창의·인성요소는 아래 <표 2>와 같다.

---

<sup>12)</sup> 김보경, 2008,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사회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표 2. 사회과의 창의·인성 요소

인성 관련 요소	능력 관련 요소
협동/책임 (민주시민의식, 사회적 관심) 개방성 호기심/흥미 정직 공정(정의로움)	문제발견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 확산적 사고

\* 출처: 김영순, 모경환외, 2013, 사회과 창의·인성 수업 설계와 실제, 사회평론(bricks)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함.

위의 요소를 가미하여 초등학교 사회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적용을 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행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내용 간의 중복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중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 이는 다양한 체험, 봉사, 진로 교육에 기초하여 학생 상호간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외 교육활동의 본래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학교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주당 2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확대되며 세부영역으로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두어 배려와 나눔의 실천을 통한 창의 인재 육성을 실현토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 그리고 ‘우리들은 1학년’ 등을 종합한 교과 외 비교과 활동이다.

아울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정보통신기술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교육내용은 일부 범교과 학습영역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각 급 학교의 특성을 고려할 때보다 체계적

인 지도의 필요성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각 급 학교에서는 이들 교육내용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이 <표 3>과 같이 연구되었으며, <표 4> 초등학교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교사 지도(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표 3.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

학습 활동별	사회과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과정(사회과 관련 주제)			
	문제과악	문제추구	문제해결	적용·발전
학습 단계	▪ 사전활동		▪ 현장활동	▪ 사후활동
견학·현장 체험	▪ 견학장소 안내 ▪ 학습목표 설정 ▪ 사전내용 수집	▪ 견학활동 계획 -모둠 조직 -견학방법 협의	▪ 견학활동 수행 -본 일, 들은 일, 한일 기록	▪ 견학내용 보고 및 토의 ▪ 보고서 작성
탐구·관찰	▪ 자료 대면 ▪ 문제 찾기	▪ 관점 알기 ▪ 관찰·실험 방법 알기	▪ 관찰·탐구하기 ▪ 결과 정리하기 ▪ 결과 토의하기	▪ 개념, 원리, 법칙 ▪ 새로운 현상에 적용
노작·실습	▪ 학습분위기 조성 ▪ 선수학습 확인 ▪ 학습문제 파악	▪ 실습계획 수립 -순서, 방법, 유의점 ▪ 실습시범, 관찰	▪ 실습 및 노작하기 ▪ 실습결과 보고 ▪ 자기평가, 상호 평가	▪ 생활화 계획수립 ▪ 활동과정의 보람
조사·수집	▪ 학습문제 파악	▪ 예상 수립 ▪ 조사과제 찾기	▪ 조사 ▪ 토의 ▪ 정의	▪ 현실에 적용 ▪ 장래문제 예견
토의·토론	▪ 분위기 조성 ▪ 주제 확인		▪ 토의 활동 ▪ 토론 활동 ▪ 의견 정리	▪ 의견 종합 정리 ▪ 반성 및 평가

\* 출처: 김영순, 모경환외, 2013, 사회과 창의·인성 수업 설계와 실제, 사회평론(bricks)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인용함.

사회과는 조사학습, 발표학습, 현장체험학습, 문화재학습, 사료학습 등 창의적 체험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과의 각 교과 학습방법 및 형태를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과 연계하면 교수학습 효과를 크게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 초등학교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학년	학년군	지리 영역	일반사회 영역	역사 영역
1~2	초 1~2	통합교과(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통합적 내용 조직		
3~4	초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가 살아가는 곳</li> <li>▪ 달라지는 생활모습</li> <li>▪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li> <li>▪ 민주주의와 주민자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동과 소통하기</li> <li>▪ 우리 지역, 다른 지역</li> <li>▪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li> <li>▪ 지역사회의 발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들이 모이는 곳</li> <li>▪ 도시의 발달과 주민생활</li> <li>▪ 다양한 삶의 모습들</li> <li>▪ 사회변화와 우리 생활</li> </ul>
5~6	초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기 좋은 우리 국토</li> <li>▪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li> <li>▪ 우리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li> <li>▪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모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경제의 성장</li> <li>▪ 우리나라의 민주정치</li> <li>▪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li> <li>▪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li> <li>▪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li> <li>▪ 유교문화가 발달한 조선</li> <li>▪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li> <li>▪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li> <li>▪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li> </ul>

\* 출처: 김명화 외,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창의성을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과의 교유한 창의성을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점이다. 즉, 전자가 영역 일반적(domain-general) 관점이라면, 후자는 영역 특수적(domain-specific) 관점의 연구에 해당한다. 전자의 연구는 일반적인 창의성

이나 다른 교과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후자의 연구는 일반적인 창의성이나 다른 교과와 구분되는 사회과 창의성에 대한 독특성과 특수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과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영역 일반적인 관점이었다. 다만, 최근에 김보경이 영역 특수적 관점에서 사회과 창의성 개념을 새롭게 모색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sup>13)</sup>.

먼저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계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교육 관련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서재천<sup>14)</sup>은 「유추법을 이용한 창의성 교육 방법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사회과 수업에서 Gorden이 주장하는 비유법(synecotics)을 활용함으로써 창의성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듬해 한면희<sup>15)</sup>의 「초등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이혁규<sup>16)</sup>의 「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사고력과 교수-학습 방안」이라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창의성 혹은 창의적 사고력의 개념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Williams의 창의적 교수 모형 혹은 Osborn의 창의력 문제해결 모형을 소개하고, 이를 사회과에서 실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최용규<sup>17)</sup>는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의 개념과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학습 환경에 대하여 언급한 다음, Feldhusen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사회과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조국남과 박성혁<sup>18)</sup>은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에서 여러 학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소개한 다음, 사회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

13) 김보경, 2008,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사회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4) 서재천, 1997, 유추법을 이용한 창의성 교육 방법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사회과학교육연구2(‘97, 12), 35~54p

15) 한면희, 1998, 초등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교육, 초등사회과교육 제 10집, 1~12p

16) 이혁규, 1998, 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사고력 교수-학습 방안,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초등사회과교육 제10집, 33~56p

17) 최용규,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6호, 3~18p

18) 조국남, 박성혁,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 37권 제2호 (2005, 6), 107~131p

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정호범, 박용조 및 이수경<sup>19)</sup>은 「초등 사회과에서 창의성 향상과 문제해결 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 상황’ 자료 개발」이라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이들은 사회과에서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수업 도입 자료로서 ‘문제 상황’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실제로 적용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종연 외<sup>20)</sup>의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 기반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도 창의성을 기르기 위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 직접 적용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는 실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한편 사회과 창의성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재은<sup>21)</sup>과 김보경<sup>22)</sup>의 연구가 있다. 박재은의 연구는 사회과에서 혼합 질문 전략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고, 김보경은 사회과에서 추구해야 할 창의성의 개념을 ‘사회적 창의성(social creativity)’으로 새롭게 재개념화 하였다.

외국에서도 사회과 창의적 교육과 관련한 연구<sup>23)</sup>는 극히 미약하다. 사회과에서 창의성과 관련한 연구물로 Baloché, Sewell과 그의 동료들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연구들도 일반적인 창의성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Baloché의 논문은 사회과 교육에서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기르기 위하여 설계된 질문기법을 협동 학습 구조와 결합하는 교수전략에 대하여 연구한 것으로서, ‘창의성’과 ‘협동 능력’이 미래의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Sewell과

19) 정호범 외, 초등 사회과에서 창의성 향상과 문제해결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 상황’ 자료 개발, 한국 사회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 13권 제 4호(2006, 11), 203~224p

20) 이종연 외, 2007,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기반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효과성 분석 :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한국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제 23권 제2호:105~133p

21) 박재은, 2001, 사회과 경제 영역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혼합질문 학습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2) 김보경, 2008,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사회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3) 김보경, 2008,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사회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재인용함.

그의 동료들의 논문은 시골의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CPS)을 사회과 수업에 적용한 연구로서, 연구자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이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과 같은 다양한 시민적 능력의 발달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사회과 창의성과 관련하여 추진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나마 대부분의 연구가 창의성의 일반적인 성격이나 개념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사회과 수업을 통해서 직접 창의성을 육성하는 방법을 적용·실천한 연구도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창의성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방법을 사회과 내용에 적용하는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사회과답지 못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창의적이지 못한 사회과 교육’이 실천될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과에 적합한 새로운 창의성 개념의 모색과 실제 수업 현장에서의 적용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해외 사례 비교 연구

#### 1. 우리나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첫 번째는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감축과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는 것이다. 각 교과목의 양적 감축을 통한 질적 제고를 고려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은 특정학기, 학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고, 고등학교는 교과목을 학년 단위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집중 이수제는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매 학기 나누어 이수했던 교과목을 한 학기에 집중해서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 과제부담, 시험부담 등을 감축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내용심화와 수업방법의 개선도 꾀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현행 매 학년 매 학기에 거의 모든 교과목을 배정하고, 학생들이 배워왔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는 10과목이고,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2과목 내외로 미국, 영국, 호주 등이 8과목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과다하다고 할 수 있다.

집중 이수제 도입은 현행 10개 교과목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중요한 점은 집중 이수제를 통해 수업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현재에는 중학교 ‘미술’의 경우 주당 1~2시간씩 수업하고 있어 피상적 맛보기 수업만이 가능했다. 그러나 집중 이수제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작품의 창작활동에 몰입할 수 있게 되고, 수업을 통해 얻게 되는 성과물은 ‘미술’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 교과에 해당하는 정규과정의 진행을 하루에 체험 활동을 통하여 마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도모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적용으로 창의 인재 육성의 방법을 모색하였다는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비교과 영역을 통합한 교육과정 영역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학교교육은 교과 지식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비교과활동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 운영하였으나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재량활동의 경우 국가 또는 광역 교육청(지역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 이수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하달하는 경향이 있었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보충학습 등으로 편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비교과활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명명하고 그 비중을 크게 확장하여 편성하였다. 이는 지나친 교과지식위주의 학교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에 따라 초등학교는 지금보다 질적으로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현행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이상으로 시간을 확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인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통해 비교과활동을 강화하면 지식과 인성이 겸비되고 균형 잡힌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교육과정의 일반적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초·중·고교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때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인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 하나의 광역 활동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 번째 특징은 학생의 핵심역량 강화와 교과의 재구조화를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두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하였다. 이전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수 기간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 학생들은 과거 10개의 기본

교과를 획일적으로 학습하는 체제였으나, 공통교육과정(“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개칭) 이수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공통 교육과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은 초등학교 1~2학년 초기 단계의 기초·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기초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초·중학교 과정으로 명확히 하여, 학업성취도평가 등을 통해 전학생의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고교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게 원하는 공부를 더 깊고, 넓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화,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나머지 교과에 대해서는 개별학생의 흥미,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는 통합하고, 위계가 가능한 교과는 재구조화를 고려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학생은 자신의 수준에 따른 교과목을 선택함으로써 고교에서의 학습결과가 대입에서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고교교육과 대입제도의 연계 및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특징은 교육과정 자율화와 단위학교 교육의 다양화를 지향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정의 자율화·다양화·선진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다. 단위학교 교육에 학교교육과정제도를 처음 도입한 제6차 교육과정 이전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소위 국가교육과정으로서 지역, 학교의 특성과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기준에 의거,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학교별 특성화 된 교육프로그램 편성·운영이 제한되어 왔으며, 학생의 능력, 진로, 적성에 대한 교육과정의 탄력적 대응이 어려웠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sup>24)</sup>.

<sup>24)</sup> 신동로, 2010,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형설출판사

이러한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만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고,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즉 교과별 20%범위 내 수업시수 자율 증감을 허용하였고, 교과(군)·학년군 도입을 통하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원활히 하였다. 고등학교는 공통필수 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교과(군)별 필수 이수단위만을 지정하여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한편 균형적 교과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교 자율과정’을 도입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및 학생의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에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sup>25)</sup>.

## 2. 해외 사례 분석

창의적 체험활동은 각 나라의 교육실정과 문화체제에 맞추어 폭넓은 개념과 영역에서 실시하며 정규 교과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규 교과교육이 지적 특성의 교육내용을 다루며,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은 창의·인성 교육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키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과)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과 인성의 교육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분위기, 즉 문화 및 풍토의 토대가 필요하므로 해외 각 국에서 프로그램 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사례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해외 사례의 국가 선정은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 내 수업의 사례를 창의적 체험활동이 본 연구의 취지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에서 지리학 연구 및 지리교육을 중요

<sup>25)</sup> 박은중, 201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실행: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발전시켰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으로 하였으며, 그 외 핀란드와 중국을 선정하여 총 7개국을 조사하였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핀란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지만 인재 육성에 관심이 많은 나라로 교육 분야 정부 지원이 많고 체계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교육학에서 교육 선진국으로 많이 연구되는 나라이며, 중국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한 나라고 또한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어 추가로 2개국을 더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의 성공요인을 기준<sup>26)</sup>(학교장 리더십을 이용한 체험활동,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 연계한 체험활동, 잘 조직된 교육과정내의 체험활동)으로 나누되 본 연구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였다.

#### 1) 국가 정책에 영향을 받는 체험활동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인성교육의 성공요인은 바로 학교장 리더십을 이용한 체험활동이다.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학교장들은 인성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으며, 이를 학교구성원들과 소통함으로써 교사들과 함께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물론 교사들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은 현재로서는 이상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몇몇 학교를 제외하곤 우리나라 교사들은 많이 지친 상태이고, 기존 관행이 지배하는 학교문화와 입시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이 뛰어난 학교장은 교직원에 대한 신뢰와 자율성을 중시하며 직원 간 통합을 이끌어 내고 있다. 또한 교직원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며, 교직원들이 제기한 교육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학교장이 적극 수용하여 학교마다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고 특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공적인 학교의 학교장은 학부모 연수를 활용하여 학교 교

<sup>26)</sup> 양승실,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355p

육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학교장과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신뢰하고 의지가 모아진 토대가 아니고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요인은 해외 사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영국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각 학교별로 그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활동의 분류를 학교장의 리더십에 의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통 여름 학기 중에 어느 한 주를 택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학습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있다. 주로 야외활동을 중시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강화하고, 사회봉사활동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활동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sup>27)</sup>.

중국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활동을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목표와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활동으로 '과외활동'으로 부르는 활동이 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배정하여 중요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상에 각론으로는 과외활동을 올려놓고 있지 않다. 다만,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에 과외활동의 시간과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과외활동의 구체적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권은 학교에 주어져 있으므로 학교장 리더십에 의해 운영될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특징은 중국의 과외활동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의 단련과 생산 노동, 사회봉사 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

<sup>27)</sup>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quoted in*, Elliott, J.(1981). *Action Research: A Framework for Self-evaluation in Schools*, IQL Working Paper No. 1. Cambridge : Institute of Education.

##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활동은 물적·인적·지역적 문화 공간 등 다양한 자원을 포함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은 학교마다 영역이 다양하다. 주로 교과 위주의 교사들로 구성된 기존 학교 자원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화와 고급화에 부응하기가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성공적인 학교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일방적인 수혜의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에서도 염두에 두어야 할 부문이라 여겨진다.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키워야 하는 학교로서 교과서에 국한된 배움이 아니라, 통합과 융합, 통섭의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미국은 넓은 지역 영향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한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sup>28)</sup>이 있다. 내용을 보면 New York City Beacons, LA's BEST(Los Angeles's Better Educated Students for Tomorrow), BSA(Boy Scouts of America), GSUSA(Girl Scouts of the USA), 4-H, PAL(Police Athletic League)등이 있다. "New York City Beacons" 프로그램<sup>29)</sup>은 1991년에 뉴욕 시의 '청소년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서 만든 것으로, 뉴욕의 청소년 및 그들 가족 사이의 범죄와 폭력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되어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다. New York City Beacons 프로그램<sup>30)</sup>은 성인 기초 교육(Adult Basic Education), 제2언어로서 영어, 가족 상

28)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교육과학사, 358p

29)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quoted in*, English. H. B., and E. C. English(1958). *A Comprehensive Dictionary of Psychological and Psychoanalysis Terms*. N. Y. : Longmans, Green and company.

30)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quoted in*, Good, H. G.(1956). *A History of American Education*. N.Y. : MacMillan Co.

담, 부모 교육, 건강 및 사회 서비스 등의 가족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LA's BEST"는 1988년에 LA에서 만들어낸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도시에서 사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LA's BEST 프로그램은 LA교육구의 24개 초등학교 5,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환경의 개선 및 여가 활동의 강화, 그리고 사회적 기술의 지도 등을 실행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LA교육구 내에서 학업 성취가 낮은 학생들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선정되어 실시되는 것이 특징이다. "Boy Scouts"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청소년 조직 가운데 하나로, 7세 이상의 남자 아동 및 남자 청소년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그들을 모범적인 시민이 되도록 교육·지도하는 단체이다. Boy Scouts의 프로그램은 남자 청소년들에게 사회적·문화적·오락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을 전인적으로 교육시키고 지도하는데 초점을 둔다. "Girl Scouts"는 Boy Scouts의 자매 조직으로서 1912년 창설되었다. Girl Scouts는 여자 청소년들의 삶을 확장시키고 그들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을 두어, 다양한 교육·오락·문화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4-H" 프로그램은 20세기 초에 농업교육의 기초로서 청소년들에게 자연 학습을 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농촌 청소년 지도 프로그램이다. 4-H 프로그램은 Head(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론하는 능력을 함양함), Heart(진실 되고, 친절하고, 동정적인 심성을 계발함), Hands(쓸모 있고, 남을 도우며, 기술을 익힌 사람이 됨), Health(건강과 체력을 단련함)의 전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Police Athletic League"는 대도시 빈민가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과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작된 방과 후 봉사활동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빈민가 청소년들과 경찰 사이에 협력적 지도의 관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PAL 프로그램은 시카고에서 처음 시작되어 지금은 미국 전역의 대도시에

확산되어 실행되고 있다.

독일은 숲과 관련한 체험활동 등으로 국내 메스컴에서도 많이 소개되고 있듯이 비교적 지역 내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다<sup>31)</sup>. 독일에서는 교육법, 교육제도, 학교제도 등이 교육자치체로 되어 있어 주정부마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교육과정을 연구·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각 주정부가 교육 목적, 내용, 방법, 운영, 평가 등을 주정부 실정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독일은 학교의 교육활동이 사회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 청소년성과 각 주의 복지시설에 의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오후 2시 이전에 수업을 마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개인적으로 다양한 학교외의 교육프로그램에 저렴한 경비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 외 교육활동의 다양성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외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Arbeits gemeinschaft'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노동협동체, 공동작업, 공동 활동을 의미하며,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등산, 합창, 체육활동, 수학여행, 정치교육, 농촌자연 학교체류, 외국학생들과의 교류 등이 있어서 야외에서의 활동,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집중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모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교직원 회의와 학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진행되나 반드시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와 결정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계획과 운영과정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흥미를 고려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행사를 할 때는 교사와 학부모가 지도자로 동행해야 하고, 교육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모든 행사는 학생 20명당 1명의 지도자로 보조교사나 자원봉사자를 동행하도록 되어 있다.

31) 체험활동의 분류는 본 연구자가 한 것으로 각 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활동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주관적인 연구 결과이므로 추후 다른 연구자 및 전문가에 의해 다른 활동으로 분류 될 수 있음.

해외 사례의 경우 지역공공기관, 각종 단체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었으며,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높은 것을 파악되었다. 이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지역지원청과 단위학교별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과정 시간표에 포함된 체험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외 활동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체험활동이 잘 진행되는 학교의 경우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이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과정안에 잘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한 해 교육 설계도인 교육 과정은 학기를 출발하기 전에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생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작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즉흥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이 아닌 치밀한 사전조사와 계획, 운영, 평가에 의해 잘 조직된 교육과정은 인성교육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방문한 우수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특별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과정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과활동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과과정을 우리나라 시간표처럼 확인할 수 없지만 해외 사례에 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 해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에서 구체적인 활동명(과목명과 같은)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미국을 두 사례로 나누어 한번 더 소개하자면 교과 관련 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언어과목에서 특히 독서 지도 프로그램과, 읽기나 학습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지도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에 가장 적합한 활동으로는 지역사회 중심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으로 보이 스카우트나 걸 스카우트 같은 각종 아동 및 청소년 단체 활동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 관련 영역 프로그램으로는 Books

and Beyond, JGBC(Junior Great Books Curriculum of Interpretive Reading, Writing, and Discussion), Extended-Day Tutoring Program in Memphis City School, ESP(Murfreesboro Extended School Program), ECRI(Exemplary Center for Reading Instruction)등이 있다. "Books and Beyond"는 자발적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K-8학년 학생들이 TV시청을 줄이고 즐겁게 책을 읽는 습관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JGBC"는 유명한 Great Books Foundation 프로그램의 아동용 프로그램으로, 2학년에서 12학년에 이르는 아동들의 독서 이해력과 인지 능력을 사실적(factual)· 해석적(interpretive)· 평가적(evaluative) 사고의 강조를 통하여 증진시키려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다. "Extended-Day Tutoring Program in Memphis City School"는 멤피스 대학의 교육정책연구 센터가 공립학교용으로 개발한 독서 지도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2~4학년 아동들의 독서 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방과 후 시간에 언어 교과 영역의 교육과정으로 그룹 지도를 함으로써, 주로 독서 영역에서의 학업 성취를 도우려는 것이다. "ESP"는 테네시 주의 머프리스보로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기한연장 학교 프로그램<sup>32)</sup>(extended-day school program)으로, 198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언어에서의 읽기 영역의 학업 성취에 초점을 두면서도 문화적·오락적 요소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CRI"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독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단어 재인, 학습 기술, 철자법, 습자법, 교정법, 작문 기술 등과 같은 독서 관련 기술을 강조함으로써 독서 이해력과 어휘력을 증진시키려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부분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일본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지도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었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창

<sup>32)</sup>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quoted in*, Klesse, E. J.(1994). *Student Activities: The Third Curriculum*, NASAA.

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각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학급활동, 아동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행사 등 집단을 중심으로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와 삶의 방법에 대한 지도로 이 또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

최근 개정된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sup>33)</sup>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 클럽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생애학습 교육체계가 점차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고 이들 사회교육기관에서의 활동 프로그램이 풍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클럽활동을 지역교육체제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일본의 중등학교가 전통적으로 방과 후 「부(部)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클럽활동 성격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클럽활동 영역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생각된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은 ‘부활동’이라고 하여 학교수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부활동을 하는 것으로서, 학교에 따라 그 활동 내용에 차이가 있다. 부활동의 내용은 전통문화 연구에서부터, 음악, 미술, 연극, 운동 등의 다양한 예·체능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은 지도교사·시간 등의 제약과 학생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격차가 심하다. 각급 학교에서는 부활동을 위한 별도의 비용은 징수하고 있지 않으나, 개개인에게 드는 것은 학생 각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다만,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학부모회나 보호자회 등의 모임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성격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중시하면서 협력하는 정신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근로존중 의식

33)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quoted in*, 成田國英·岡本孝司(1992). 小學校 特別活動. 東京. 教育出版株式會社, p. 4.

을 심어주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게 하는 활동으로 규명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심을 갖고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며, 학생의 적성발견과 능력 신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의 자각,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사회적 자질 함양 등이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홈룸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4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계발활동에 해당되는 내용과 봉사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을 묶어서 클럽활동이라는 영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봉사활동 내용에는 근로 생산과 봉사행사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체험활동의 운영은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의 시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상호 관련을 유지하면서 배당하도록 하고, 홈룸과 클럽활동 시간 수를 주당 2시간 이상 배정하도록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은 교육계획에 부합되고 각 교과와 도덕의식과의 관련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수업 시수의 배당은 정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공공단체의 협력체제는 시설, 설비 지도자 및 자원 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체험활동의 평가와 관련하여 영역별로 공통되는 평가관점을 작성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관심이나 욕구, 태도, 사고와 비판, 기능과 표현, 지식과 이해 등의 평가 관점이 고루 반영되도록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장점과 가능성의 발견, 자기실현의 지원차원에서 기록하도록 한다.

일본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교과 영역의 지도뿐만 아니라, 교과 외 영역의 활동을 중요시 여겨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변화 추세는 학교 교육에 총합 학습시간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감지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총합적인 학습시간(총합학습)이라는 영역을 도입<sup>34)</sup>하였다. 총합학습이란 우리나라의 ‘재량활동’과

34)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각론 중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같은 내용으로

같은 영역으로 교육과정 편제상 교과 영역이 아닌 교과 외 영역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 교과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탐구하게 된다. 교과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차이점은 교과 학습은 대응하는 학문분야를 배경으로 해서 지식과 경험을 조직하는 것이라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종래의 학문분야에서는 배제되어 온 현실적인 문제를 주제로 하여 지식과 경험을 조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동 내용으로는 가족문제, 차별, 폭력, 평화, 환경, 인구, 복지, 고령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수시로 교육내용이 시대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따라 즉각적으로 학교 현장에 교육내용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교과외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일본의 교육에서는 교과 측면 못지않게 교과 외 측면의 내용을 중시하고 확대 추진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문화의 전승, 개개인의 학습이상으로 반이나 분단에 의한 교실 자치라는 시스템을 기초로 한 인간 육성을 중시하며, 이러한 인간 육성의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1996년 일본 중앙 교육 심의회의 보고에서는 학교에서는 완전 주 5일제를 실시하여 학교, 가정, 지역 사회 간의 연계를 돈독히 하고, 여유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엄선할 것과 국제화, 정보화, 환경 문제 등에 대응 등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앞으로의 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유 속에서 살아가는 힘을 키운다” 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1996년의 중앙 교육 심

---

총합적 학습시간(우리나라의 ‘재량활동’과 같은 영역으로 교육과정 편제상 교과 영역이 아닌 교과 외 영역을 이르는 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내용에서 혼돈이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일하여 기재함.

의회의 보고에 따라 신설이 제안되었다. 이 보고에서는 살아가는 힘이 전인적인 힘을 의미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횡단적, 종합적인 지도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합적 학습시간을 마련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 학습시간의 목적은 각 학교의 창의력을 살려 실시하는 횡단적, 종합적인 학습과 아동의 흥미, 관심 등에 기초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학습하는 법, 사고하는 법을 몸에 익혀 문제 해결과 탐구 활동에 주체적, 창조적으로 참가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다. 종합적 학습 시간의 학습 활동은 각 학교가 창의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결정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의 재량활동과 비슷한 성격으로 학생들의 폭력문제 등 인성교육을 종합적 학습 시간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일본의 특별활동은 유토리 교육을 폐지하고 학력증진에 중점을 두면서 인간성, 사회성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아침독서 권장, 감성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의 특별활동 성격과 목표 분석을 통하여 인성교육 요소를 추출하면 주로 협동심, 사회연대정신, 개성, 민주시민의식, 공동체의식, 책임감, 자기주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과 목표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성 덕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 4) 국가의 교육적 특성이 반영된 체험활동

프랑스, 핀란드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활동이 많이 조사되었다. 이는 국가적 교육·문화·사회 등 전반적인 국가 분위기가 다르며, 이에 따른 국민 교육 의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프랑스<sup>35)</sup>의 경우 교육의 기회 균등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의 능력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학력격차 및 문화적 격차를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여

<sup>35)</sup> 유광찬, 2012, 창의적체험활동의 탐구, 교육과학사, 365p

기서 중요한 교육영역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학습부진아를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개인별 보충지도를 통한 학력 격차 해소 노력과 각 학교와 각종 사회·교육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 간에 계약을 통해 방과 후나 수업이 없는 수요일 또는 토요일에 각종 문화·체육활동을 제공하고 예술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환인 방과 후 특기정석 교육으로 대표적인 것은 음악원 또는 무용원에서의 음악 및 무용(Conservatoire)교육을 들 수 있다. 문화부 후원 하에 있는 400여 개의 국·공립 음악원·무용원은 실기 시험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며, 문화부 교육방향 지침에 의거하여 나이와 실력에 따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개인별 실기교육과 전문적인 이론 교육 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수익자 부담으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나 전체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문 음악가나 무용가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이나 오후에는 정규 수업을 받고, 방과 후에는 개인 연습과 음악원·무용원에서 특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일부 중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특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일반적으로 하루에 4~5시간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6시간의 훈련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숙학교인 이들 학교에의 입학은 학군과는 상관없이 종목, 실력수준, 소속연맹, 학업성적,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연맹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며, 학생이 개인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러한 꿈나무 육성 교육기관은 청소년체육부 산하 국립 체육원(INSET)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 목적의 특기·적성교육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동 외에 일반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면, 프랑스는 주로 바캉스와 관련한 활동,

바다 교실, 눈 교실 등과 같이 계절과 연결된 야외 교육활동, 문화재 탐방교실, 음악 교실, 학교 스포츠회 활동, 종교 활동 등이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교 스포츠회는 모든 중·고등학교에 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에는 반드시 스포츠 관련 교육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집단생활과 야영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80여 일이나 되는 여름방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중요시 여기는 프랑스의 국가적 대행사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여름 바캉스를 위해 일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바캉스를 계획하고 바캉스가 지나고 나서는 바캉스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또 일 년을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여름 바캉스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 약 한달 동안 걸친 여름 바캉스를 떠난다.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도 여름철에는 4주일간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부모들을 따라 바캉스를 다녀온 어린이들의 상당수는 나머지 방학기간을 어린이들만을 위한 바캉스 촌에 참가하여 심신 단련과 야영 활동의 체험활동을 한다. 전형적인 프랑스의 바캉스 촌은 백여 명 정도의 어린이들을 연령별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각종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지도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대학생들이 부업으로 바캉스 촌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간혹 교사들 자신이 바캉스를 즐길 겸 바캉스 촌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바캉스 생활을 통하여 어린이들은 학교와 가정에서의 그들 나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한편으로는 집단생활을 배우고 부모들에게 무작정 의존하지 않는 독립 정신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심신 단련을 중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국에서는 초등학교 졸업반 어린이들에게 3주일간에 걸친 클래스 드 네주(눈 교실)를 마련해 준다. 클래스 드 네주란 글자 그대로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알프스 쪽의 산장으로 교실을 옮겨서 오전에는 정상 수업을 오후에는 스

키타기를 가르치고 즐기게 하는 특별 바캉스라고 할 수 있다. 파리와 같이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도시는 물론 지방도시에까지도 알프스 산맥 일대에 산장을 몇 개씩 소유하고 있다. 시에서 소유하는 산장은 여름철에는 노령자들에게 여름 바캉스를 즐기도록 제공되며, 겨울철에는 클래스 드 네주에 가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이용한다. 클래스 드 네주의 비용에서 교통비, 숙박비, 스키타기에 드는 비용 중 약 70%는 국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는 부모들이 부담하지만 30%의 비용도 내지 못할 형편의 가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드 네주에 가지 못하거나 보내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하는 경우는 없으며, 모든 어린이들이 학교에서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위한 각성활동도 중시한다. 학교에서는 역사, 지리, 천문 등의 교과를 마음의 눈을 여는 교과로 분류 된다. 이 교과들에 동반, 영화, 프랑스식 권투, 리듬체조, 컴퓨터 등에 관한 활동을 포함시켜 이 전체를 각성 활동이라 부르는데, 이 각성 활동은 아동의 감각 운동 능력과 지각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인간의 사회생활을 풍요롭게 하도록 도와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에서는 일반 교과서 보다는 각성 활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비교과 활동을 더욱 중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매우 힘들다. 프랑스는 건축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관심을 끄는 지역에서 한 주일 동안 체류하기 위해 조직되는 문화재 탐방 교실을 운영하기도 한다. 이 교실의 목적은 문화재를 통해 과거를 발견하고, 과거의 문화들이 오늘날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용해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실은 일상적인 학습 생활과 단절을 가져오지만 직접적 체험을 아동에게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의 물리적이고 예술적 활동의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프랑스 체험활동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예체능 중심의

특기·적성 교육인 콩세르바투와르(Conservatoire)이다. 콩세르바투와르는 음악, 미술, 연극의 특기·적성을 학습하는 교실이다. 콩세르바투와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선발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보통 음악 콩세르바투와르에서 음악 학습을 계속한다. 콩세르바투와르는 문화부 후원 하에 다양한 전공교육을 갖춘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음악 및 예술 분야의 특기 적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소르본느 대학에 의해 인증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개인별 실기교육과 전문적인 이론교육 등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집중적 교육을 받고 있다. 전문 음악가나 무용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업시간을 조정하여 정규수업과 개인 연습, 콩세르바투와르에서의 특기 교육을 모두 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핀란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로 만 6세 취학 전 교육에서 대학원생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상교육이다. 대부분이 국가와 학교에 의해 교육이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므로 교과 과정을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원부족 국가로서 인재 육성에 관심을 집중하여 단 한명의 낙오자도 없는 교육을 국가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기르려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협동을 교육적 가치로 삼고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다. 상대 평가 및 우열반 등을 폐지하고 지방 및 학교 자치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교육개혁을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이 끝나는 프리스쿨에서는 취학 전에 테스트를 통해 집중력, 인내력, 자기관리력 등 초등학교에서 학업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재교육이 이루어진다. 국가적 단위의 시험은 없으며 모두 교사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가지고 학습하며, 그것의 성취에 대한 자율적 평가를 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흐름은 세계적 교육개혁의 동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핀란드의 초·중등학교 교육체제에서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대응하는 교육활동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와 교육과정이 다른 것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지역적 특색과 학교의 실정에 맞게 주 단위 및 학교 단위 교육과정이 개발, 실천되고 있다. 핀란드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에서는 ‘대인관계’, ‘자기관리’, ‘시민의식’, ‘심미적 감수성’, ‘다문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인관계’의 활동에서는 협동심 배양, 협동 기술 습득, 협동 및 상호작용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관리’는 자아 존중감 형성, 건전한 세계관 형성, 탐구적 학습태도, 건강 및 복지 생활양식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민의식’은 주로 책임감, 사회 구성원 역할 수행, 삶과 인권 존중, 타인배려 능력 등이 하위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심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심미적 경험과 기능 개발, 심미적, 예술적 경험, 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 능력 등이 하위요소로 포함되어 있으며, ‘다문화’는 다양한 언어 관련 지식과 기능, 문화 정체성 등이 하위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

## 5) 체험활동에 관한 해외사례 시사점 분석

### ①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

우리나라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교육과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어 온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학교의 실태, 학습자의 능력이나 요구 등이 반영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위한 모든 과정에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는 것이며, 셋째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중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sup>3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교교육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사들의

36) 양승실,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399

인식 부족과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 운영 관행, 학부모의 입시중심 교육의 요구 등에 의해 소극적, 파행적 운영을 한 학교가 많이 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에 맡겨짐으로 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융통성 및 자율성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영역 간 통합 운영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교과와의 관계나 교육 시간의 통합문제 등으로 실질적인 연계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② 미국

미국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다양성과 개별성을 인정하는 철저한 실용주의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국가에서 교육 과정에 명문화되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특성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학생의 요구와 학교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 있다. 학생들의 욕구를 광범하게 수용하여 실행되는 활동으로 개인지도, 기초학습보완, 예능·문화 활동,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같은 청소년 리더십 활동, 다인종·다문화 교육체제 내에서의 제2언어로서의 영어 학습, 마약 및 폭력 예방 강좌 운영 등과 같은 활동으로 여기에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활동도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각 교육청 산하의 지역학교별로 협력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즉, 각 교육청 산하의 지역학교별로 하계방학 기간에 서머스쿨 개설 학교를 지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인근 지역의 모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개설 및 운영 전반을 해당 강좌의 전문가가 있는 대학교와 연계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서머스쿨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전문가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높다.

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징을 요약 해 보면 첫째, 지방정부나 학교에

따라 지역 실정에 알맞은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어떠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지만 학교 실정에 따라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둘째, 야외 활동이나 캠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적인 활동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의 상당수 초등학교에서는 여름 학기 중에 어느 일정한 기간을 택해서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연간 학습 결과를 발표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름 학기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주간을 설정하여 전교생에게 창의적 체험활동반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캠핑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야외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의 선택과 합의를 중시한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으로 구성된 학생회나 학생자치기구가 학교 일반 행사에서 학교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학교의 방침을 세우고 경영하는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자문 역할을 하면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에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경험과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학생들에게 교과 관련 활동보다는 예체능 계통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교육, 사고력과 정서적 함양을 위한 교육 등 풍부한 경험과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다섯째, 대학·연구소·지역사회기관·학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다양화를 위한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학교 교육활동 관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도와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비롯하여 아이 돌봐주기, 숙제 도와주기, 수영 강습, 취미 생

활, 캠프 활동과 결손 가정이나 불우한 가정 및 소외된 가정의 아동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가치관을 심어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여섯째,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외래 강사의 초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강사의 활용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비중이 큰 과제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에 있어서 초빙 강사의 경력이나 능력 등을 세밀히 검증하여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는 인식을 제고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 체제의 구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사만으로 짐으로 만들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사회 인적 자원과 시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7)</sup>.

미국의 창의성 및 인성교육은 전국 단위의 단체 혹은 조직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학생, 지역사회에서 동참하도록 유도한다는 다양성과 독자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현재 교육부 산하의 '안전과 마약 없는 학교국(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추진되고 있다. 2007년 6월부터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약41개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특징<sup>38)</sup>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이 창의성 및 시민교육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인성교육은 존경, 정의, 공평, 배려와 같은 윤리적 덕목뿐만 아니라 다양성, 책임, 신뢰, 시민의식 등과 같은 시민 덕목 또한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의성과 결부하여 윤리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sup>37)</sup>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356

<sup>38)</sup> 김왕동, 2011,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외국교육동향;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범위를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특징을 인용 및 첨부함.

둘째, 인성교육이 교육과정에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옥스고등학교(Oaks High School) 교사들은 도덕적 문제해결과 윤리적 사고 덕목을 다양한 교과목에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학교는 인성교육의 원칙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을 관리 및 감독하고 있다.

넷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인성함양과 교육자료 제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멘데즈 재단(Mendez Foundation)의 ‘마약과 폭력 예방(Too Good for Drug and Violence)’ 프로그램은 마약과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관련 도서 및 비디오는 물론 게임, 음악, 롤플레이팅, 스토리텔링, 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민간부문 비영리 전문기관의 활동이 활발하여 조지프슨 연구소(Josephson Institute)는 ‘인성은 중요하다(Character Coun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③ 영국

영국은 학교에서 지방정부,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운영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보통 여름 학기 중에 어느 한 주를 택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학습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에서 스포츠와 사회봉사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다.

영국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의 특징적인 것으로 첫째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내용이 단순한 신체활동이나 흥미 위주의 활동이 아니라, 학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내용이 운영되고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꾸준히 실천된다. 주로 저학년의 단계에서는 재미, 흥미 위주의 친선놀이나 게임을 위주로 구성하고, 고학년에서는 경기나 게임의 경우에는 리그전을 펼치는 등 비교적 큰 규모의 대회를 운영하여 참여하도록 한다.

둘째로는 야외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영국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야외활동을 중시하고 있다. 영국의 웰포드 위크햄 초등학교(Welford and Wickham Primary School)에서는 7세 아동에서부터 10세까지 모든 학생의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올리는 것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학교의 야외 학습 활동 내용은 약 18일 동안 걸쳐 런던 지역 탐험, 바르셀로나 활동, 바다낚시, 프랑스에서의 요리 실습, 플로렌스 지방 여행, 승마, 탁구반, 파도타기, 다이빙 등이 프로그램 내용이다.

셋째로는 융통성이 있고 다양한 시간 운영 방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야외에서의 활동을 중시하는 만큼, 며칠 또는 1~2주일간의 집중적인 활동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유헌동을 활동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상당수 초·중등학교에서는 여름 학기 중에 어느 한 주를 택해서 각종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일 년간의 학습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있다. 영국의 크레스트우드(Crest Wood) 장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캠핑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야외활동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학년의 학생들로 로워 학교(Lower School)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클럽활동은 정규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 오전 수업시작 시간 전, 점심시간이 이용되며, 해외 수학여행이나 교외기관 방문은 방학 중이나 공휴일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시간 운영 방법을 활용한다.

넷째로는 가정 및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활동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적 자원과 시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의 오크 팜 지역학교(Oak Farm Community School)에서는 여름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주간을 설정하여 전교생에게 창의적 체험활동반 중 적어도 한 반 이상 선택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숙박

을 하면서 캠핑 등을 통해 다양한 야외 활동을 경험하고 다른 학년의 학생들과도 서로 접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 ④ 독일

독일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징은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에 명시하거나 주당 수업 시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별로 그 활동 유형이나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독일의 교육과정 연구나 편성은 우리나라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법, 교육제도, 학교 제도 등이 교육자치제로 되어있어 주정부마다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독자적으로 주정부가 교육목적, 내용, 방법, 운영, 평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실정에 맞게 자치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독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방정부, 학교마다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하게 운영한다. 독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이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내용이나 방법이 지방 정부마다 특색 있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둘째, 야외에서의 활동, 며칠 또는 1~2주일간의 집중적인 활동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을 중시한다. 독일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등산, 합창 체육활동, 수학여행, 정치교육, 농촌자연학교 체류,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 등이 있어서 야외에서의 활동, 다양한 형태의 교류활동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집중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에는 학생들의 참여와 합의 그리고 선택을 중시한다. 독일에서의 모든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교직원 회의와 학교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진행되나 반드시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와 결정에 의하여 진행됨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흥미를 고려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의 발달 단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사의 적절한 지도 아래 학생에 의한 자주적·실천적 활동이 조장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학부모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인적 자원과 시설을 광범위하게 활용함으로써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독일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행사를 할 때는 교사와 학부모가 지도자로 동행해야 하고 교육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이 개방되어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프로그램도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을 보면 독일의 바덴-뷔르템부르크 교육청이 교사에게 나누어 준 연간 교육계획서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예시된 것으로 등산, 합창 체육활동, 연극장, 뮤지컬 프로그램 관람, 수학여행과 정치교육, 농촌자연학교 체류, 기업체 방문, 프로젝트의 날 운영,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 등이 있다.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직접 체류하는 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학생들은 중유럽이나 동유럽 국가 간의 학생 만남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2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청소년 유관단체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정치 교육활동, 조형 예술활동, 조형적인 형상활동, 대중매체 교육활동, 기술 교육, 운동, 환경활동 등이 운영된다. 독일에서는 각 단위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은 법적인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청소년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많은 단체들은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일관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펴면서 그러한 정책과 활동들은 각 단위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이어진다. 또한 연구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성

을 신장시키고 그렇게 신장된 전문성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준다. 학교 외 청소년 활동은 19세기 중엽부터 활성화되어 사회에서 청소년 교육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 활동으로는 1949년에 창설되어 독일 최대 규모의 청소년 조직으로 '연방 청소년 연맹'이 있다. 연방 청소년 연맹은 현재 20개의 회원 단체와 11개의 지부 조직, 그리고 4개의 협력조직을 갖고 있으며, 다양한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민간이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민간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원 단체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교류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청소년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최대 과제로 하고 있다. 민간 청소년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는 정치교육, 일반교양 등과 같은 학습 활동을 비롯하여, 전통공예나 음악, 예술 활동, 각종 스포츠 활동 등 매우 다양하다. 이외에도 영화회, 스포츠 대회, 정치 문제 토론회 등의 행사도 개최하면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 ⑤ 중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보면 같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서 정치적, 문화적인 영향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이나 내용, 운영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면에서 보면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교과외의 활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구성된다는 점과 집단 참여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활동, 자아실현과 자기표현의 기회 확대, 자율적인 생활태도 육성,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면에서도 학교행사 영역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는 점과 학생의 자주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중시한다는 점,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내용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운영 면에서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당시간을 확보한다는 점과 수업 시수의 탄력적인 운영, 학생과 교사의 협력적인 활동 계획 수립,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는 점,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시설과 설비를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이 밖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집단 활동을 통한 개성의 신장, 자율적인 태도와 개인적 자질의 함양, 질서를 지키면서 협력과 협동의 실천,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의 개발, 자신의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능력 신장 등에서 공통적이다.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교과 편제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는 점과 교과외 영역으로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이 갖는 교과와의 상호보완적 관련성을 강조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여기까지는 중국과 일본을 포괄한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중국과 일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변화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는 종래의 클럽활동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편제상에서 위상이 모호하였던 특기·적성교육 등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속에 포섭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에서는 정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클럽활동을 제외하여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클럽활동의 사회 교육화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다른 접근이다. 이것은 종래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클럽활동 위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의 실태에 비추어 좋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방과 후 부(部)활동이라는 이름으로 특기 계발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발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의 의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의 편제에 의해 설명가능한 편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 학교에

서의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을 계발활동으로 봄으로써 창의적 체험활동에 이를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인재 육성에 따른 상황 판단력, 문제해결력의 함양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힘’을 교육하기 위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과외활동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과 동시에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외활동의 개념에 있어서 중국은 ‘덕육(德育)’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로써 과외시간에 학교가 학생에 대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의 과외활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과외활동이 학생들의 학교 학습활동의 보충으로서 전인발달 교육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덕육을 기르는 방법의 하나로서의 과외활동을 의미하는 경우로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에 충실한 인재를 배양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첫 번째가 가진 과외 활동의 의미는 우리가 시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별 차이가 없는 학생들의 개성신장과 전인적 성장으로서의 교육활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지니는 의미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서방사회의 과외활동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 즉 과외활동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지닌 인간의 배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중국의 과외활동은 문서상의 교육과정을 보면 매우 간단히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만 보아서는 학교수준의 과외활동의 편성과 운영에 관련된 많은 결정권한을 중국에서는 학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 학교마다 매우 다양한 과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V. 결론

흔히 미래사회에서는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 부담을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며, 지나친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현하는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창의·인성 교육의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종전에는 없었던 지역사회의 여건이나 학교의 실태, 학습자의 능력이나 요구 등이 반영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의 편성·운영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체험활동이 중시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체험 중심의 활동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구현하고 국가 수준의 교과활동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의 구현과 지역사회나 학교수준에 적합한 특성화 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하고 특색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발표된지 4년이 지난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인식 부족과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 운영, 학부모의 입시중심 교육의 요구 등에 의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명목적, 파행적 운영에 머문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육과정 선진화로 지금까지 통제해 왔던 교육과정을 개방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여, 개별 학교나 학생에게 보다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는 경직된 교육과정

을 유연한 교육과정으로 만들고, 동시에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안목과 능력을 회복시켜주고, 학교나 학생이 학교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한다<sup>39)</sup>. 유연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밝혀 사회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실태와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교과 영역의 특수적 관점에 입각하여 사회과에서 추구하려는 창의성의 개념도 함께 모색해 보았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사회과 교과과정은 공통적으로 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수행능력을 강조한다. 경험과 활동이 중심이 되어 실천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에 소속된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 또한 같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교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흥미를 느끼게 해 주므로 교과 외 영역으로 규정지을 필요는 없다. 특히 사회교과에서 지리영역은 교실 내 수업보다는 현장 답사 및 외부 활동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매우 관련이 있는 교과로 집단을 단위로 하는 활동이며,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과 교과라는 점에서도 함께 융합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여 국가별 특징에 맞게 분류한 것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궁극적 목적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몇 가지 당부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교과과목 이외의 창의적 체험활동에만 너무 전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교과 과정 내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교과와 활동이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활동이 운영되고, 지역사회 여러 기관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이 지원되며 학생들이 자원봉사의 기

<sup>39)</sup> 정광순, 2010,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통합교과 지도*, 235p

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체험 버스는 지역 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담임 선생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의사로 학급 학생들에게 교과 내 ‘우리고장 답사하기’라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지역 역사 탐방, 우리 고장 알리기 등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실례가 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소속감과 결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 활동으로 인한 사건·사고로 인해 학교와 학부모 모두 학생의 활동에 대해 많이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리고 학교, 교사,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인성함양이나 창의적 사고기법을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속의 특정 주제에 맞춰 구체화 할 수 있는 체험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론적으로 터득할 수는 없다. 지식의 ‘앎’보다는 실제 능력의 ‘함’을 강조하여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활동이 학생들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면 이와 상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간접 경험을 통한 직접 경험을 쌓게 하는 학습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사회과 수업에 대한 교수 방법은 정규 수업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교과 교육으로서 사회과 교육을 통해서 기를 수 있거나 반드시 길러야 하는 창의성의 개념과 의미를 확립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대상인 모든 학생들은 학습의 바탕을 이루는 지적 수준을 각각 달리 하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성숙도나 경험적 배경도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수업도 창의적 체험활동처럼 개성 신장 교육과 여

가 선용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여 학생이 가지는 각각의 특성을 창의성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성 계발은 교과 과정에서는 다룰 수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고유 역할로 자신이 활동의 계획, 실천, 평가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지닌 학습 활동이며, 이러한 학습 활동은 사회 교과를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계발할 수 있다.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통해 학교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특성화된 교육, 지역 여건이 반영된 지역화 된 교육, 학교의 특성이 살아나는 개성화 된 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사회과에서도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에 발맞춰 현 사회의 현황과 여건, 바람직한 정책 방향, 미래상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잡힌 시각, 건정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 과목들이 뒤처지지 않고 현장에 계속 참여하여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사회 교과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접목시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사회 교과의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참고 문헌

- 강성종 외, 2012, 학교교육과정 실행과 사회과 교육의 탐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한국학술정보, 212-246
- 강현석 외, 2003,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과교육과정 설계 원리와 방향, 중등교육연구, 51(2), 1-39
- 김명화 외,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김보경, 2005),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사회과교육연구, 12(2), 1-18
- 김보경, 2008, 사회과 창의성 교육의 재개념화-‘사회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88
- 김성준 외, 2010, 교과교육에서 창의성의 이론과 실제, (주)학지사
- 김왕동, 2011, 미국의 인성교육 현황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외국교육동향
- 박은중, 201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실행: 이론과 실제, 한국학술정보(주)
- 박재은, 2001, 사회과 경제 영역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혼합질문 학습의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춘성, 2010, 창의·인성의 특성과 학교에서의 발현을 위한 방안 탐색, 창의력 교육연구, vol. 10, 61-72
- 서재천, 1997, 유추법을 이용한 창의성 교육 방법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사회과학교육연구2(‘97, 12), 35-54
- 서태열, 1996, 지리개념의 발달단계에 대한 연구: ‘장소’ 개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1(4), 699-715
- 신정엽, 2009, 초공간 인지의 성별 차이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지리교육적 함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17(2), 125-134
- 양승실,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유광찬 외,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교육과학사
- 윤종혁, 2009, 일본의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교육 변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광복, 2010,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해, 충북교육연구, 제13호
- 이규은, (2009). 창의적 체험활동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 포럼 자료집, 61-74

- 이명준 외, 2011, 교과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11-7-1, 73-358
- 이성은 외, 2002, 초·중등 교실을 위한 새 교수법, 교육과학사
- 이자원, 김은혜, 2010, 선진국 지리학사를 통해 본 지리교육의 중요성,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학회지 제 44권 제3호, 427-429
- 이종연 외, 2007,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기반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의 효과성 분석 :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한국교육공학회, 교육공학연구 제 23권 제2호
- 이혁규, 1998, 사회과에서의 창의적 사고력 교수-학습 방안,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초등사회과교육 제10집; 33-56
- 정광순, 2010, 교육과정에 기초한 초등통합교과 지도, 양지사
- 정호범 외, 초등 사회과에서 창의성 향상과 문제해결학습의 효율화를 위한 '문제 상황' 자료 개발.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제 13권 제 4호(2006, 11)
- 조국남, 박성혁,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교육,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시민교육연구 제 37권 제2호(2005, 6)
- 진의남 외, 2011,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세미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7-157
- 채종준, 2012, 학교교육과정 실행과 사회과교육의 탐구, 한국학술정보(주), 1-276
- 최용규, 1999, 사회과 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사회과교육연구 6호, 3-18
- 한면희, 1998, 초등사회과에서의 창의성 교육, 한국초등사회과교육학회, 초등사회과교육 제10집, 1-12
- 成田國英·岡本孝司(1992). 小學校 特別活動. 東京. 教育出版株式會社, p. 4.
- Elliott, J.(1981). Action Research: A Framework for Self-evaluation in Schools, IQL Working Paper No. I. Cambridge : Institute of Education.
- English. H. B., and E. C. English(1958). A Comprehensive Dictionary of Psychological and Psychoanalysis Terms. N. Y. : Longmans, Green and company.
- Good, H. G.(1956). A History of American Education. N.Y. : MacMillan Co.
- Klesse, E. J.(1994). Student Activities; The Third Curriculum, NASAA.

<http://creativeschool.kedi.re.kr>(교육개발원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www.crezone.net](http://www.crezone.net)(창의·인성교육넷)

[curri.mest.go.kr](http://curri.mest.go.kr)(2009개정 교육과정)

## **ABSTRACT**

# Comparative study of Korea character education activities and overseas cases

Kim, Eun-Hy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Korea has a 2009 revision of the curriculum revision background 'practice of sharing and caring and creative talents' is present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goal of character education, the era of the window. Reduce the excessive burden of student learning and students' learning interests and causes, rather than piecemeal learning knowledge and the ability to understand gireumyeo education, caring and sharing too much memorization and practice-oriented education in the creative talent of positive changes in the education expressed willingness to pursue doing. Social studies class as well as a long-term perspective by presenting the nation's teaching methods and creative process of teaching students to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and educational activities together as a group through social studies, you should cultivate creativity can or must reveal the meaning of the concept and to develop it yourself and can be expressed in practical problems. Therefore, as a fundamental study of the social studies courses that are to serve as the cornerstone of the futur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the course must be evolved to find its way to near by country, so you should be able to

fulfill the creative activities of the society (Geography) curriculum with educational goals and achievements can make progress in the right direction for the study.

2009 revision of social studies curriculum even before the announcement of an investigation, study, study released on-site experiential learning, cultural heritage learning, such as feeding study in the field of creative activities and was closely.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not unworthy of creativity in social studies education' is made or 'creative social studies did not' at risk of this practice, but this reality is suitable to overcome the social studies exploring new creative concepts and practical ways to improve teaching in the field applying a force for research on international practices and compared the results of a case study that shows like Japan, China and Korea, but creative activities that have been made in most countries, but emphasis on outdoor activities such as sports and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to enhance the activities of creative activities highlighted the main activities, respectively.

These results reflect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at the present time (creative activities, after-school activities) while receiving the support of the status and condition of our society, the preferred policy direction, vision and understanding and balanced view of the right, healthy values and establish and to sprea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subjects included in the social studies (geography, etc.) that should serve as the cornerstone of that was emphasized that, because of the long-term social studies education activities and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government's interest in receiving subjects was confirmed.